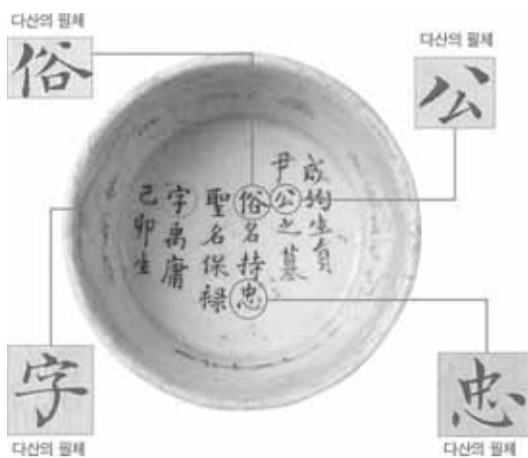


◆머느리권씨 열전 16-1

국내 최초 천주교 순교자 윤지충의 母, 권상연의 姑母 권씨 (추밀공파 29世, 권기정의 딸)

권상연과 윤지충의 무덤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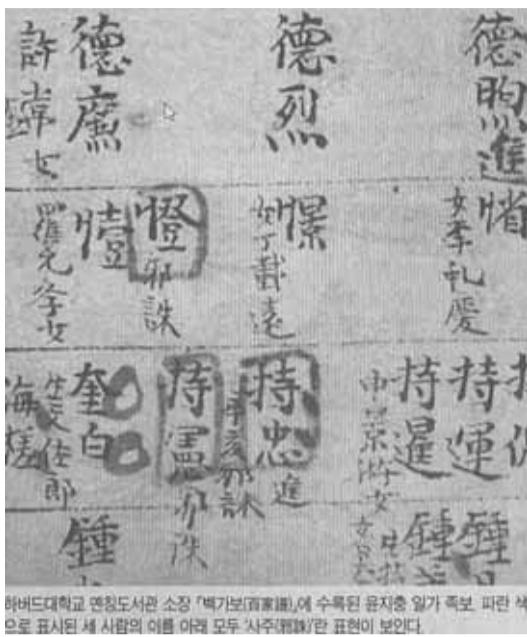


2011년 천주교 전주교구는 "지난 3월11일, 초남이 성지 바우배기 성역화 과정에서 순교자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물을 출토했다. (무연분묘 10기 중) 5호 무덤과 3호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사발자식의 명문 판목 때 한글의 첫 순교자인 윤지충 바로(5호)와 권상연 야고보(3호)의 기록을 확인했다. 8호 무덤에서 윤지충의 유해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바우배기에 순교자 묘소가 있다는 이야기는 구전으로 내려왔다. 윤지충(尹持忠·1759~1791), 권상연(權尙然, 1751~1791)의 유해가 신해박해 때 처형된지 230년 만에 발견된 것인데, 사발의 글씨는 정약용이 쓴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한다.

최초 순교자 윤지충의 어머니 권씨가 외사촌형인 권상연의 고모인데, 기실 권상연의 부친은 양자로 와서 권씨부인과 실체는 사촌간이다. 여기서 같은 날 12월8일 처형되었지만 윤지충이 최초가 된 것이다. 고모의 아들 정약용(丁若鏞, 1762~1836) 형제로부터 전교를 받은 것이다. 실제 조선인 최초 순교자라는 것은 임진왜란 때 끌려가 오사카에서 화형당한 빈센트핀(Vincent Cawn, 1579~1626)으로 추정된다.

진산사건(珍山事件)

진산은 지금은 충남이나 당시는 전라도였다. 진산은 郡이었다. 해남 尹씨는 남인 계열로 윤선도가 6대조이고 증조부는 윤두서,父는 윤경(尹儗)이고 母는 안동 권씨(安東權氏)로 권기정(權沂敬)의 딸, 조부는 윤덕렬(尹德烈), 증조부는 화가로 유명한 윤증(尹拯),대대로 해남에 살다가 아버지 윤경이 해남을 떠나 외가인 안동권씨들이 많이 모여 살고있는 진산에 옮겨와 살았다. 윤경은 벼슬길에 나아가지는 않았고 대둔산 밑 조용한 마을에서 평범한 선비로 살았다. 고모 윤소은(尹小淵)이 정약용의 부친인 정재원(丁載源)과 혼인하여 정약용 형제를 낳았으니 윤지충의 고종사촌 동생들이다. 이런 인연으로 정약용의 형제 그리고 그의 매부인 이승훈(李承薰)



과도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남인에 속했는데, 당시 시대적 분위기는 정조가 남인을 중용하여 서인을 견제하는 탕평책을 펼침으로 인해 남인들에게도 관직 출사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윤지충은 벼슬에 뜻을 품고 과거시험에 응하여 1783년(정조 7)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상경후 정약용 형제를 만나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어머니 권씨가 사랑하자 유언대로 천주교 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신주를 불태운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어 군수가 유배가고 이들 윤지충, 권상연은 배교(背教)하지 않아서 결국 처형된다. 당시 이것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1790년 북경 교구장인 구베아 주교가 조선 천주교인들에게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윤지충의 외종사촌 권상연은 자신의 집안에 모시고 있던 신주를 불태워 땅에 묻고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았다. 1785년(정조9) '추조 적발사건(秋曹摘發事件)'이 발생했다. 중인(中人) 김범우(金範禹)의 집에서 천주학을 강의하던 이승훈을 적발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천주학(天主學)이 사악한 학문(邪學)으로 규정되었다. 이어 1787년(정조11)에는 '반회사건(泮會事件)'이 발생했다. 이승훈과 정약용(丁若鏞)이 성균관 근처 반촌(泮村)에서 천주교 서적을 공부하다가 유생들에게 발각되어 폭로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확산되었고, 천주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엄격히 금지하게 되었다. 또 노론등의 공격 격리도 되고, 일파만파 문제가 확대되니 정조도 사실상 피할 방법이 없이 극형으로 처리 하였다.

당시 윤지충이 쓴 일기가 있었으나 사라지고, 이

제사 금지는 1930년대에 다시 구베아 주교의 뜻은 실효(失效)한다고 발표하여 천주교가 지금은 제사를 인정하고 있다.

하여간 교황청은 2014년, 윤지충의 피 묻은 수건과 함께 그들의 순교에 대해 복자(福者)추대로 보답하였다. 권씨 부인의 아들 윤지충, 윤지현, 조카 권상연이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다.

해남윤씨

해남윤씨의 시조는 윤존부(尹存富)이나 이후 7세까지는 자세한 연혁을 알 수 없고, 고려 말 사온 직장영동정(直長靈同正)을 지낸 8세손 윤광전(尹光典)이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에 터를 잡고 해남윤씨의 기틀을 잡아 중시조로 삼고 있다. 해남윤씨는 8개 파가 있는데 해남 지역은 주로 녹우당의 어조은파(漁樵隱派)를 중심으로 세거하고 있다. 어

조은(漁樵隱) 윤희정은 해남정씨의 사위가 되어 해남읍 연동리에 터를 잡게 된다. 해남윤씨가 지역의 명문사족으로 기틀을 잡은 것은 윤희정의 아들 세명(世明)이 문과에 급제하면서부터이다. 큰아들인 윤구는 1516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부교리를 지냈으며, 기묘사화 때 영암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기묘명현의 한 사람이다. 셋째 아들인 윤행(尹行)도 문과에 급제한 뒤 등래부사, 나주목사, 광주목사 등을 지냈고 후에 가진대부 동지충주부사를 역임하였다. 막내아들인 윤복(尹復)도 1538년 문과에 급제한 후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강진 금곡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해남윤씨는 그 후에도 경상도관찰사와 예조참판 등을 지낸 윤의중, 평안도도사와 공조좌랑을 지낸 윤광계(尹光啓) 등 여러 인물들을 배출한다. 또한 시가문학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윤선도는 해남윤씨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윤선도(尹善道)의 출현으로 크게 빛을 낸 해남윤씨는 윤선도의 증손인 윤두서(尹斗鎭)에 이르러 다시 천재적인 예술을 꽃피웠는데, 윤두서의 아들 윤덕희(尹德熙, 1685~1766)와 손자 윤용(尹溶, 1708~1740)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문인화의 맥을 이어 가문의 명성을 드높였다. 뒤든지 후손이 잘 나면 조상중에 없던 영의정도 나타나고 후손이 못 나면 있던 영의정도 비석이 조각나 땅 속에 묻힌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철영 기자

아 온 조선 국가의 전국적인 인물이었다면, 조선시대 안동이라는 로컬지역으로 그 범위를 좁힐 때, 오늘날 권기는 사실 안동문화의 주춧돌을 놓은 개척자적인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늘의 세대들은 어느 누구도 고산(古山子) 김정호(金正浩)(1804년~1866년)의 '대동여지도'(1861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애석하게도 인문지리학자를 제외하고, 권기의 '영가지'는 기억의 저편에 놓여 있다. 이와 필적하는 '함주지(咸州誌)'(1587년)는 한강(寒岡) 정구(鄭逵)(1543년~1620년)가 함주(오늘의 함안)지역 군수로 재직하면서 기획·편찬한 편찬이다. 반면, 그의 지지가 완성된 21년 후에 그리고 대동여지도보다 253년 앞선 '영가지'는 영의정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1542년~1607년)이 하회마을로의 낙향(1600년)하면서 제자인 권기에게 지지(地誌) 편찬을 권유(1602년) 하였다.

지지만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통치이념이 반영된 방대한 자료의 정리를 위해 인적·자원, 시간, 예산이 투입된다. '신찬팔도지리지'(1432년),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동국여지승람'(1481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등은 관(官)의 인력을 동원한 '관찬官撰 지지地誌'이다. '영가지'는 권기가 '권씨세보(權氏世譜)'(1602년)를 8년에 걸쳐 편수하고, 그의 나이 56세 때, 졸루정에서 권행가(權行可),와 6년 동안 편찬 작업했다. 1607년에 광산 光山 김득연 金得畊, 영가 永嘉 권오 權晤, 진성 眞城 이혁 李赫, 곡강 曲江 배득인 裨得仁, 철성 鐵城 이적 李適 등이 참여·교정한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다음호에 계속)

권기(權紀)의 생애(생애)와 '영가지(永嘉誌)'의 재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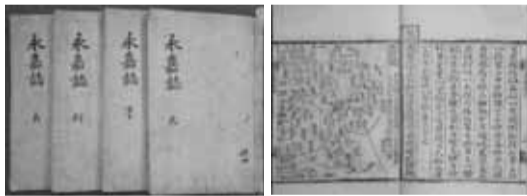
: 2024년 서세逝世 400년 추모기념 학술대회에 앞서

권기대(權奇大, 공주대 교수, 경영학박사, 북아공 26세손)

권기백(權奇栢, 대덕대 교수, 공학박사, 북아공 용만 주손)

오늘날 안동을 찾는 방문객들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서핑을 통해 안동의 맛집이나 농산물 먹거리에 흥미를 갖는다. 가령, 안동한지(고구려 소수림왕 371년), 안동소주(신라시대 1200년), 안동국시(고려시대, 1400년 전), 안동간고등어(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안동문어(1700년대 추정), 안동식혜(증보산림경제, 1766년), 안동사과(1926년), 안동찜닭(1980년) 등이다. 또한, 안동은 야외에 문화재로 산재(散在)한 박물관이다. 즉,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2010년), 권기의 '영가지(永嘉誌)'(1608년)를 포함한 305개 문종과 서원에서 기탁한 718종 6만 4226장의 목판인 유교책판(2015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안동의 먹거리는 바로 상품에 이름(naming)을 붙인 브랜드(상표)를 의미한다. 브랜드(brand)란 어떤 경제적인 생산자를 구별하는 시각적인 이미지와 경험의 집합이며, 좁게는 어떤 상품이나 회사를 구분하는 상표, 표지(標識)를 말한다. 숫자, 글자, 글자체, 간략화된 이미지인 로고(logo), 색상, 구호를 포함한다. 브랜드는 식별성/차별성, 출처(원산지), 법적보



(그림 1) 권기의 영가지(1608년)

호, 안정적 품질, 자산성, 연상작용, 충성도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담고 있다. 이는 공산품·농산물·서비스에서부터 인물, 도서(圖書), 지역, 국가 등에서 활용된다. '영가지'에 언급되는 대추, 밤, 배, 구기자, 오미자, 참마 등은 당시 안동의 주산물이었다.

(그림 1)과 같이 '영가지' 브랜드 편찬의 책임자이었던 권기는 다가오는 2024년 1월 10일이 서세(逝世) 400년 되는 날이다. 그의 '영가지'는 오늘의 안동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도약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였고, 사실 안동의 정치·경제·농업·사회문화의 출발을 널리 알린 상징적 기록물이다. 서애 유성룡 선생(1542년~1607년), 학봉 김성일(1538년~1593년)은 당시 조정의 국사(國事)를 도맡

밀양종친회 제70차 정기총회 개최

안동권씨 밀양종친회는 지난 5월 12일 울산 대왕암 및 부산 다대포 관광을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유기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2022~23 회계년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와 신입 임원을 선출하였다. 신입회장은 권영근(좌윤공파), 총무는 권기영(북아공파)이 선출되었으며 기타 운영

진 구성은 회장에 임명하기로 하였다. 신입회장은 인사말에서 종친회의 활성화와 방안과 적극적인 홍보로 회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회원님들 모두 즐거운 시간으로 축친간 결속력을 다지자고 말하였다.

권기영 총무



2023년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및 권영창 신임 회장 후보자 선출

2023년 제2차 상임위원회가 5월 11일 10시 30분 권해옥 회장, 권영의 수석부회장, 권철환 수석부회장, 권길상, 권건중 상임부회장, 권주연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성용 부산종친회장, 권수용 부회장, 권오돈 추밀공파총회 회장 직무대행, 권영창 영주종친회장, 권중수 상임위원, 권용기 대전종친회장, 권정택 상임위원, 권오을 상임위원(국회의원 3선, 국회사무총장 역임), 권오덕 변호사, 권영상 변호사, 권영하 상임위원, 권기욱 상임위원(우평건실회장), 권태복 상임위원, 권혁창 세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권오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권오상 사무총장은 총원 31명 중 20명이 참석했고 7명이 위임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권영의 수석부회장이 회의를 선언하였다. 사무총장은 대종회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권해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근에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19대 회장을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이다. 이전에는 경선하여 선출했는데 한 핏줄 자손끼리 이전투구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제도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와 종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절차이다. 이번이 변경된 제도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오늘 회의가 모범적이고 자랑스럽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말했다.

권혁창 감사가 감사보고를 했다. 권오상 사무총장은 2022회계년도 결산안과 2023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여 회장이 통과를 선언했다. 권해옥 회장은 그간 대종회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하는 안건에 대해 설명하였고 상임위원들은 전원 찬성하였다. 또한 회장은 장학생 14명을 선발하는 안건을 설명하였고 상임위원들은 전원 찬성하였다.

이어서 임원선임(회장 추대)에 대한 심의가 실시되었다. 권오덕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는 권영창 상임위원과 권오돈 상임위원 두 명이며,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후보자 두 명에게 서약서를 징구하였다. 권영창 후보와 권오돈 후보는 점수순으로 소견 발표를 하였다. 권주연 상임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정관에 규정된 '심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권건중 상임부회장의 "투표도 심의의 한 방법이다"라는 의견과 권철환 수석부회장의 "심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심의 및 결정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오덕 선거관리위원장은 "심의는 심사와 의견"이라는 의미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권주연 상임위원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는 투표로 1명을 정하자는데 동의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투표는 사전에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과 기표소 등을 빌려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설치하여 공직자 선거관리 규정대로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명의 후보자가 투표결과에 대해 승복했다.

먼저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하면 유권자는 기표소에 가서 해당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척하는 절차대로 시행하였다. 이때 후보자가 각 1인씩 추천한 참관인이 투표 전 과정을 지켜보고 개표까지 참여했다. 권영창 후보 측에서 추천한 참관인은 권갑현 편집위원장이, 권오돈 후보자 측에서 추천한 참관인은 권경일 추밀공파총회 사무처장이 각각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또한 선거 보조인으로 권순용 이사와 권오달 편집위원을 현장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투표 완료 후 권오덕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였다. "회의에 참석자 20명 중 기권 1명, 권영창 후보 16표, 권오돈 후보가 3표를 득표하여 권영창 후보가 차기 회장 추대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했다.

권영창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지지에 감사하다. 이사회와 종무위원회 및 총회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최종적으로 선임이 된다면 대종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권오돈 후보는 내가 선임이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안 되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여러분의 결정이 조상님들이 도와 주셔서 제 뜻대로 된 것 같다. 제 일을 위해서 조상님들이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해옥 회장은 선거결과에 승복한 권오돈 후보를 위해서 박수를 보내자고 제의하자 모든 상임위원들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냈다.

기타토의 시간에는 권영의 수석부회장이 정관 11조에 의거 고문단을 자문위원회로 구성해서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고문단이 자문기관 역할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했다. 이 안건은 전원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이로써 제49차 정기총회와 제19대 신임 회장 추대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제2차 상임위원회는 12시 35분에 모두 마쳤다. 권행만 편집국장

권영창 신임 회장 후보 이사 종무위원회 만장일치 동의

상임위원회에서 5월 11일 선출된 권영창 신임 회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이사 종무위원회가 5월 16일 권기식 부회장, 권오수 부회장, 권재혁 부회장, 권부성 부회장, 권영복 부회장, 권정택 이사(상주종친회장), 권병선 종무위원(추밀공파 청화공 종중 회장), 권동원 종무위원(찬의공 이사장), 권정호 이사(변호사, 서울정장년회장), 권윤순 이사, 권승호 이사(전 서울정장년회장), 권기성 이사, 권태왕 이사, 권혁중 이사(글로벌 뉴스통신 발행인, 세명대 특임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권오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최되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권해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는 정관에 의거 절차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 후보에 대해 동의를 얻기 위한 회의이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한 이사, 종무위원, 부회장 중 단 한사람도 이의제기 없이 만장일치로 권영창 회장 후보에 동의했다. 권영창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대종회 발전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 앞에 섰다. 영주시장을 역임했고, 국회의원도 도전해 봤으며,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대종회 회원으로서 대종회 발전에 기여한 적도 있다. 대종회 회장으로서 사무국을 활성화하여 사업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능동에 시조 영정도 모시고 현수운동도 벌여 여기가 성지구나 느낄 수 있게 볼품 있는 성지로 가꿀 예정



수락연설을 하고 있는 권영창 회장 후보(가운데)

이다. 지역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효자효부 찾기도 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어 수지 예산안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할 생각이다. 대종회에 열정을 쏟아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대종회장이 되겠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말했다. 참석자들은 다시한번 큰 박수로서 권영창 후보에게 화답했다.

기타 토의 시간에는 권정택 상주종친회장은 어느 특정 과에서 계속 회장직을 맡는 것보다 각 파별로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권해옥 회장은 각 파를 앞세우는 것보다 인물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동원 참의공 이사장은 대전 뿌리공원에 건립된 안동권씨 기념탑 조형물(102호)은 대전종친회 중심으로 1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그 내력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뿌리공원 행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으니 대종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축친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했다.

권행만 편집국장